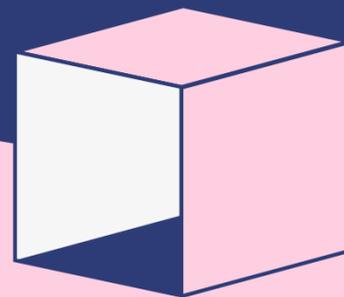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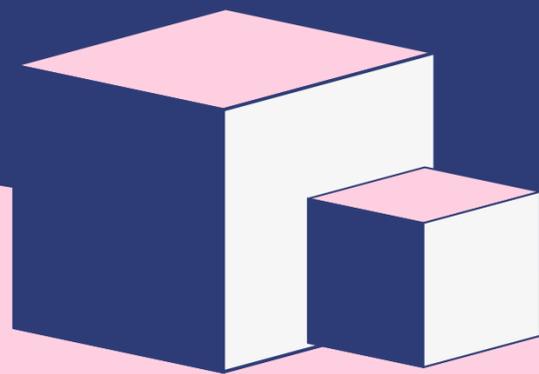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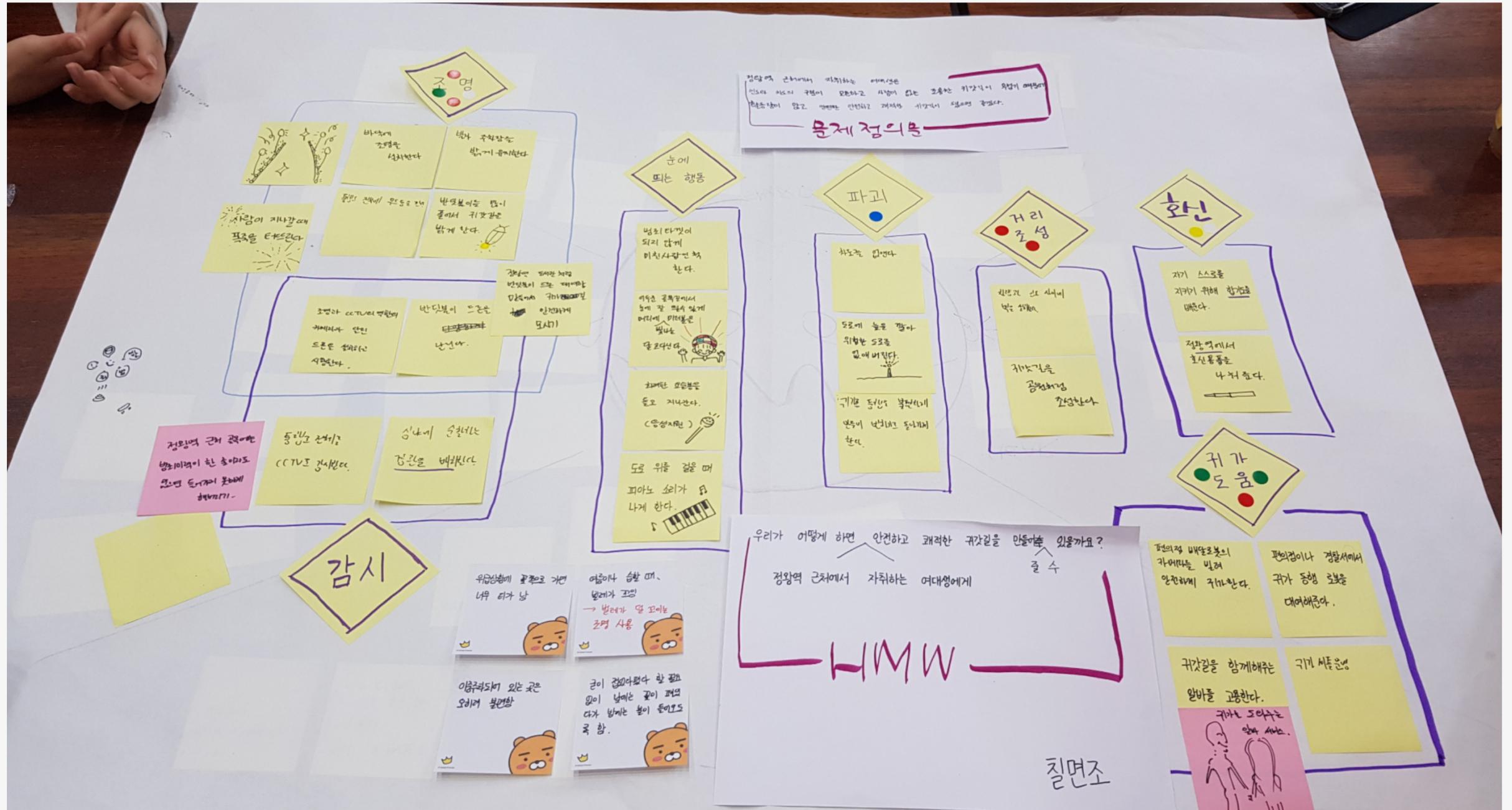
태융합(소셜벤처BM과 디자인씽킹)

정왕역 근처 안전 대책

-칠면조-



문제 해결 과정



정왕역 근처에서 자취하는 여대생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모호하고 사람이 없는 조용한 귀갓길이 무섭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고 안전하며 쾌적한 귀갓길이 되길 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왕역 근처에서 자취하는 여대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귀갓길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조명>

- 바닥에 조명을 설치한다.
- 빌라 주차장을 밝게 유지한다.
- 통행로 전부에 무드등을 깐다.
- 반딧불이를 많이 풀어서 귀갓길을 밝게 한다.
- 사람이 지나갈 때 폭죽을 터뜨린다.

- 조명과 cctv의 역할의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설치하고 사용한다.
- 반딧불이 드론을 날린다.

<감시>

- 통행로 전체를 cctv로 감시한다.
- 심야에 순찰하는 경관을 배치한다.

<눈에 띄는 행동>

- 범죄타겟이 되지 않게 미친사람인 척 한다.
- 어두운 골목길에서 눈에 잘 띄 수 있게 머리에 빛나는 미러볼을 달고다닌다.
- 화려한 요술봉을 들고 지나간다.
- 도로 위를 걸을 때 피아노 소리가 나게 한다.

<귀가 도움>

- 편의점 배달로봇의 카메라를 빌려 안전하게 귀가한다.
- 편의점이나 경찰서에서 귀가 동행 로봇을 대여해준다.
- 귀갓길을 함께해주는 알바를 고용한다.
- 귀가 셔틀을 운영한다.

<호신>

-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합기도를 배운다.
- 정왕역에서 호신용품을 나눠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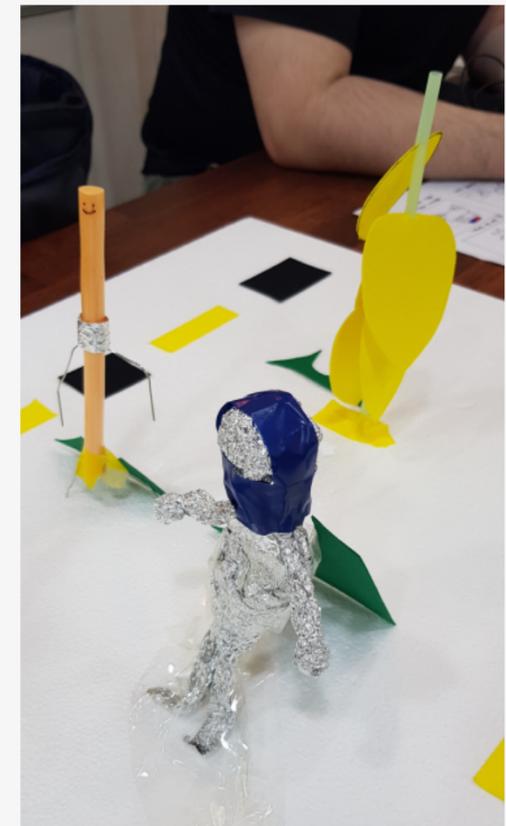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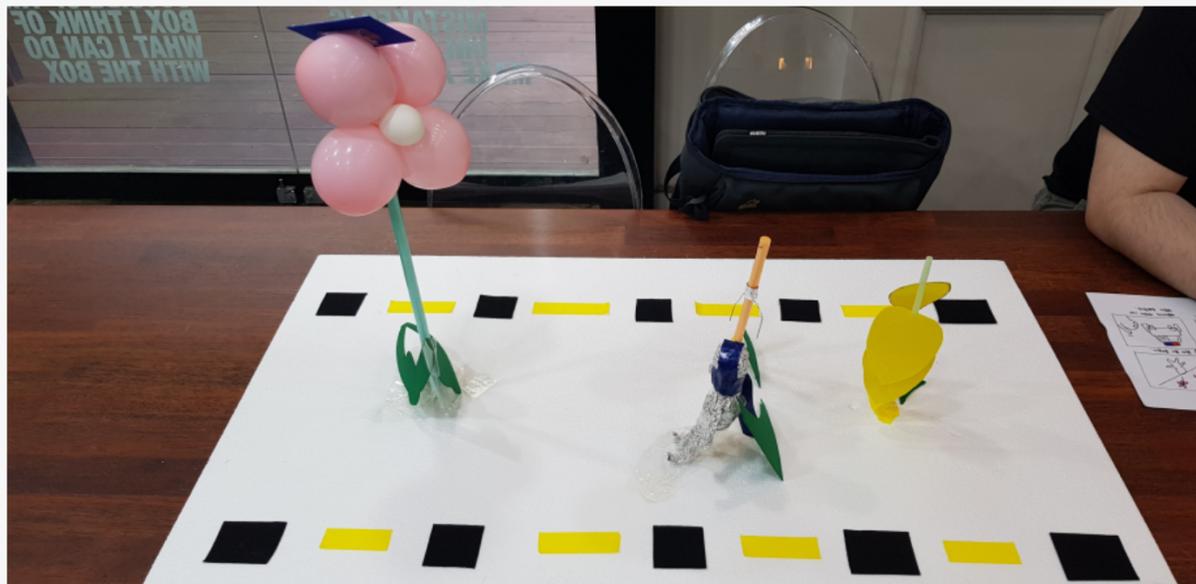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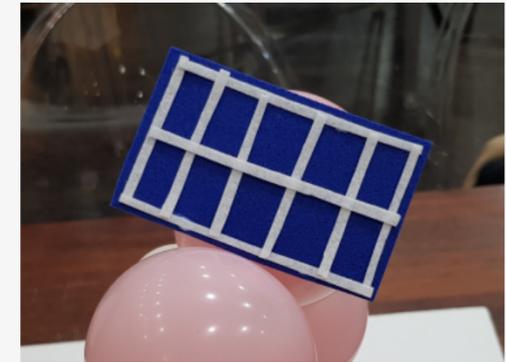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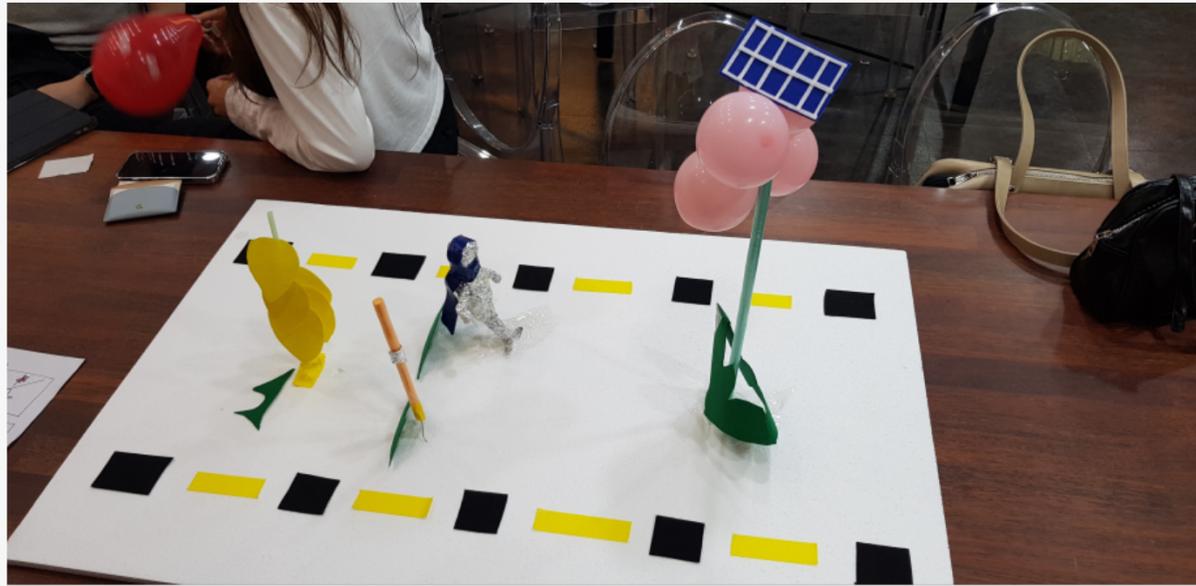
<거리 조성>

- 차도와 인도 사이에 벽을 설치한다.
- 귀갓길을 공원처럼 조성한다.

<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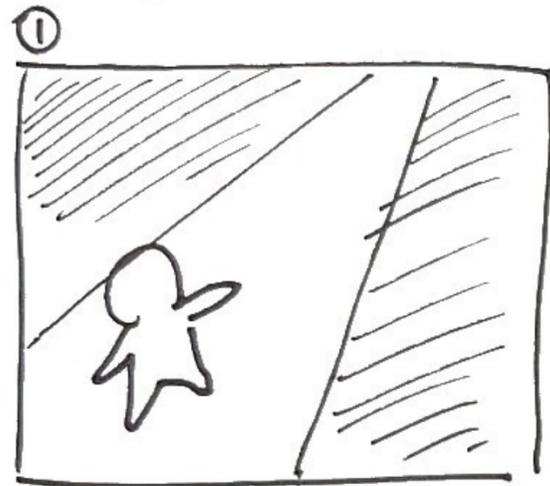
- 차도를 없앤다.
- 도로에 늪을 깔아 위험한 도로를 없애버린다.
- 귀갓길 통행을 불편하게 만들어 변화가로 돌아가게 한다.

프로토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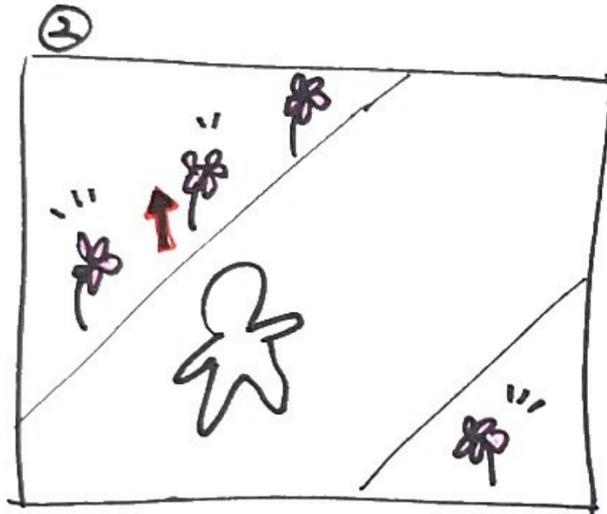


LED 꽃을 이용한 안전한 귀갓길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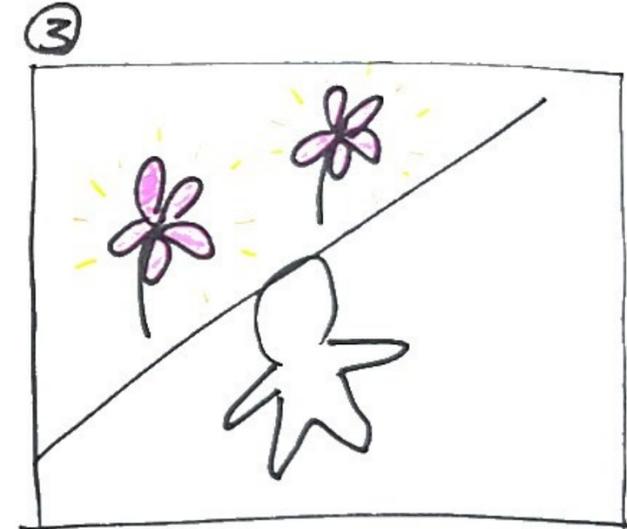
Story 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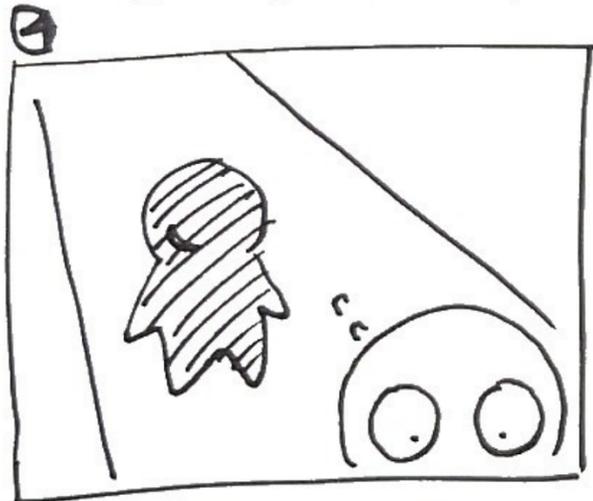
① 문득길에 사람이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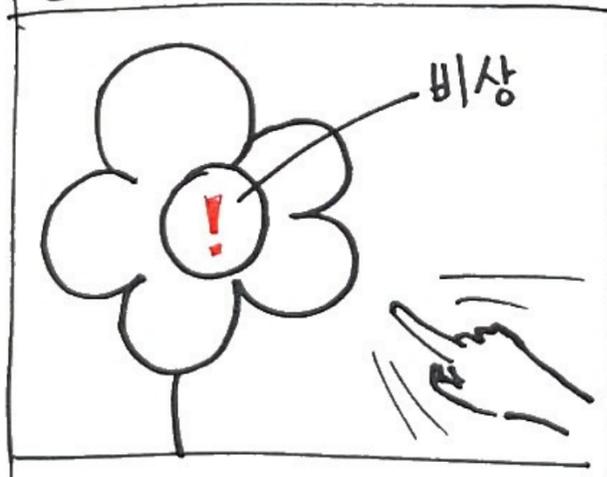
② 고개속에서 꽃들이 고개를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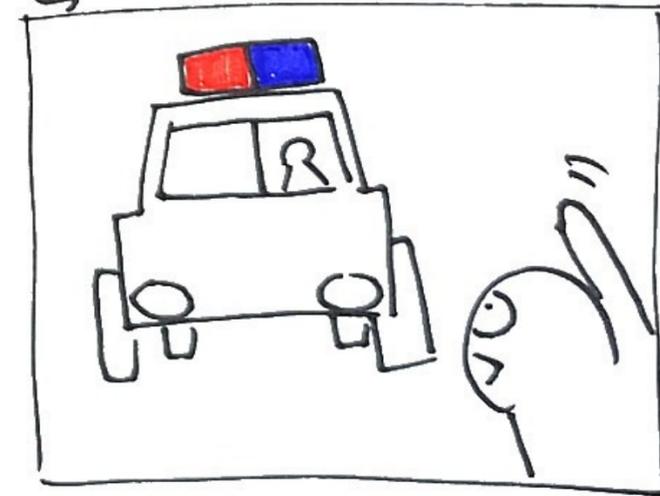
③ 꽃에 불이 들어온다.



④ 두에서 수상한 사람이 찾아온다.



⑤ 꽃으로 가서 비상버튼을 누른다.



⑥ 경찰에게 연락이 가고 병원이 호출한다.

여름이나 습할 때 벌레가 꼬인다.

벌레가 덜 꼬이는 조명을 사용한다.

꽃을 접었다 폈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낮에는 퍼있다가 밤에는 불이 들어오도록 한다.

이중주차되어 있는 곳은 오히려 불편하다.

LED 꽃을 설치함으로써 이중주차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위급상황에 꽃으로 가면 너무 티가 난다.

꽃에 블루투스 기능을 달아서 핸드폰과 꽃이 블루투스로 연결만 되면 바로 경찰에게 연락이 가도록 한다.

THANK YOU.